



## 학교 밖 청소년을 품은 ‘인디학교’



2014.09.19 | 최정은\_ 새사연 연구원 | jechoi@saesayon.org

학교밖 청소년들에게 ‘비밀언덕’ 이 되고 있는 성북구의 '인디학교'. 인디학교가 하루아침에 똑딱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성북구에서 오랫동안 교육운동에 발담가 온 단체들의 네트워크가 낳은 제1호 학교다.

### 학교밖 청소년의 특별한 공부방 ‘인디학교’

20평 남짓한 사무실 한쪽에 회의탁자가 놓여있다. 얼핏 보면 그저 평범하기만 한 회의 공간은 학교를 그만두고 나와 다시 공부를 시작한 청소년들에게겐 더없이 특별한 공부방이다. 공부를 해야 할 양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안 나온다고 해서 별점을 주는 일도 없다. 대신 학업을 포기했던 친구들이 주눅 들지 않고 공부를 시작할 수 있다.

이 모두를 의무가입비 3만원만 내면(이 비용은 간식비로 활용된다.) 조건 없이 지원해주는 곳이 바로 성북구에 위치한 ‘인디학교’ 다.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비밀 언덕’ 이 되기 위해 올 1월부터 운영되었다. 지금은 학교에 걸맞은 공간으로는 부족할 수 있지만, 학교 밖 친구들이 언제든 와서 공부하고 간식을 먹고, 또래들과 한바탕 웃고 즐길 곳으로는 충분해 보인다.

사실 오랫동안 공부와 담을 쌓은 청소년들이 다시 연필을 든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책을 펴고 의자에 앉는 것만으로 쯤이 쭈실 일이다. 사무실 책상 위에는 지난 일주일동안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끄꿍대며 만든 영어단어장이 있었다. 어렵지 않은 기초단어일 지라도 책상에 앉아 영어를 보고 썼을 청소년들의 노력이 가상해보였다.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주세요.



김영숙 인디학교 교사는 학교 현장에서의 참담한 모습을 상기시켜주었다. 수업을 듣는 학생은 한 반에 5~6명도 채 되지 않고, 상당수 아이들이 책상에 엎드려 수업을 포기해 안타까웠다고 한다. 어떤 현직 교사는 학교가 등학교를 점검하고 졸업장을 주는 곳으로 전락했다고 한탄했을 정도라고 전한다. 교육 현장에서는 수업을 따라오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교과를 운영하는 게 현실이다. 기초학력이 낮아 공부하는 ‘언감생심’인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은 이제 시작단계일 뿐이다.

인디학교와 인연을 맺은 학생들은 여러 유형이다. 학교 수업을 따라가지 못해 자는 일 외에 할 게 없었던 아이들, 장시간 폭력에 시달려 일상생활조차 어려운 아이들, 흡연과 결석 등으로 학교 징계를 받아 결국 자퇴서를 쓰고 나온 아이들, 보호관찰이 필요한 아이들 등으로 다양하다.

## 우리 교육의 현실

지난해 치러진 학업성취도 평가에서도 우리 교육의 문제가 감지된다. 2013년 전국 중3과 고2 전체 학생(약 110만명)을 대상으로 국어, 수학, 영어 3개 교과에 대해 학업성취도 평가를 치렀다. 이 결과에 따르면, 보통학력 이상 비율은 중3 75.8%, 고2 84.6%로 전체 평균 80.2%다. 이는 2012년 대비해 1.3%p 올랐다. 반면 기초학력미달 비율은 중3 3.3%, 고2 3.4%로 전체 평균 3.4%로 2012년 대비 0.8%p로 증가했다. 특히 서울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전국 평균을 훨씬 웃돌고 있다. 서울지역 중2학생의 기초학력미달 평균은 3.7%, 고2는 5.2%로 최고치다.(교육부, "2013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발표", 2013). 전반적으로 우리 청소년들의 학업성취도 수준은 계속 오르고 있지만, 기초학력에도 미치지 못하는 학생들도 꾸준히 늘고 있음을 말해준다.

전국적으로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들도 계속 생겨나고 있다. 2012년 한 해 동안 7만4천여 명의 학생들이 학교를 그만뒀다. 이는 초중고 전체 672만1176명 중 1.1%를 차지해 적지 않은 수다. 우리나라 의무교육 과정이 중학교까지임에도 학교를 중단하는 초등학생은 0.6%, 중학생은 1%나 된다. 물론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4.8%로 급격히 늘어난다. 이렇게 학교를 그만두는 이유는 무엇일까? 고등학교를 그만두는 학생의 상당수가 ‘학교부적응’을 이유로 꼽았다. 학교 중단자 3만7천여 명 중에서 1만6400여명인 43.9%가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떠났다. 자세히 밝혀지지 않는 ‘기타’의 이유도 41%나 되며, ‘가사’(8%), ‘질병’(5.9%), ‘품행’(2.1%) 순으로 학교를 그만두고 있다(전경숙·이아름, “경기도 학교밖 청소년 지원방안 연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2013)

물론 각 부처별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대응책들을 시행하고는 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 청소년쉼터를 통해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여러 사업들을 하



고 있다. 이는 해밀교실, 두드림존, 청소년동반자, 청소년 특별지원, 가솔청소년보호 등으로, 학업복귀와 자립을 지원하고, 사례관리와 생계지원, 주거 및 생활지원을 위해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중단청소년과 잠재적 학교중단 청소년을 대상으로 대안학교, 평생교육시설, 지자체 등을 통해 학력취득을 지원하거나 예방사업을 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지원센터나 산업인력공단을 통해 무직이나 비진학 청소년을 대상으로 직업훈련과 취업지원을 한다. 보건복지부는 청소년자활지원관을 통해 빈곤청소년을 대상으로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막상 학업을 중도에 그만둔 아이들이 선뜻 발길을 옮기거나, 지원을 받을 곳이 마땅치가 않다. 부처별로 여러 사업들을 시행하나, 펴고 있는 사업의 가짓수에 비해 광범위한 학교밖 청소년들의 지원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학교를 중단한 아이들의 절반은 검정고시로 학업을 이어가거나 대안학교로 진학하기도 하나, 나머지 절반은 아르바이트, 가출, 칩거, 배회, 비행 등 힘겹게 살고 있다.

## ‘인디학교’가 특별해 보이는 이유

### 1) 지역 기반

열악한 우리 교육의 현실에서 인디학교의 존재감은 더 빛이 난다. 지금은 30여명 내외의 아이들이 인디학교를 ‘비밀 언덕’으로 애용하고 있다. 이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을 목표로 검정고시를 준비하는가 하면, 간식을 먹으러 들르기도 한다.

근처 학교 선후배로 지내던 학교 밖 무리들 중에 한 명이라도 들어오면 꼬리를 물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자신의 초라한 학업 수준을 또래들에게 들킬까봐 선뜻 시작하지 못하다가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에 용기를 내는 아이들도 더러 있다. 검정고시만 치르겠다던 아이들도 대학진학까지 꿈꾸며 수능 준비를 위한 하반기 계획표도 세웠다. 어떤 청소년은 아동청소년 활동에 흥미를 느껴 지역 멘토링 사업에 참여하면서 활동가로 성장하고 있다. 불가능한 일이 현실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학교 밖 청소년들 곁에 인디학교가 있었기 때문이다.

김영숙 인디학교 교사는 지난해 학교 안에서 징계를 받은 청소년들을 만나는 일을 했었다고 한다. 학기 초와 달리 학년 말에 70명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아 정신없이 시간을 보냈다고 토로했다. 학교 규정에 따라 별점을 주겠지만, 낙인찍히고 상처받은 아이들이 눈에 밟혔다고 한다. 또 김 교사는 학교에서 기초학력이 부족한 아이들 수업을 맡은 적도 있다고 한다. 중고등학생이지만 영어 알파벳을 쓰거나 단어조차 읽기 어려워하고, 한글 문장 하나를 완성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주세요.

이처럼 아이들이 학교 안에 머물고만 있을 뿐, 경계선을 넘으면 인디학교에 다닐 아이들이 많은 게 현실이다.

## 2) 강한 네트워크

사실 인디학교가 하루아침에 똑딱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성북구에서 오랫동안 교육운동에 발담가온 단체들이 2011년 성북아동청소년네트워크(이하 성아청)로 뭉친 게 발판이 되었다. 성아청이 청소년 지원사업으로 공부방을 운영해오다 올해 공동사업의 하나로 ‘학교’ 사업을 벌인 거다. 결국 인디학교는 성북구의 자발적인 시민네트워크가 만든 제1호 학교인 셈이다.

성아청이 지난 3년간 청소년 사업만을 집중해오면서 성북구 지역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공립 대안학교가 가장 절실했다. 송민기 인디학교 교장은 공교육 운영방식에 큰 불만을 느껴 대안학교 설립 의지를 키웠다고 한다.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방과 후에 어디에서 지내는지 조사조차 성의껏 진행되지 않았다고 한다. 행정적으로 설문조사 공문을 나눠주지만, 답을 하지 않은 아이들에게 한 발짝 다가가는 적극적인 노력이 이뤄지지 않는 등 공교육의 한계가 뚜렷했다. 물론 지자체나 교육청에 기댈 수도 있었으나, 네트워크의 노력에 힘입어 성북아동청소년네트워크 부설기관으로 ‘인디학교’를 세웠다.

처음에는 14개 단체에 불과한 네트워크였지만, 올해는 43개 단체로 확대되었다. 성북구에서 청소년 사업을 하는 단체라면 제약을 두지 않고 참여할 수 있는 넓은 연대망을 지향하고 있다. 최근에 생겨난 사회적기업도 들어와 기존 단체들과 섞여 공동 활동을 펴는데 무리가 없다.

강한 네트워크의 힘을 느낄 수 있었다. 최근에 성북구에 필요한 ‘작은 도서관’을 만들면서 이에 관심 있는 단체들이 TFT를 꾸렸다고 한다. 설립부터 자립까지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진행하고, 시간을 내어 운영활동을 지원하고, 도서관에 필요한 책 선정에서 프로그램까지 협업하고 있다.

성아청이 단체들의 회비로 운영되지는 않는다. 지역에서 펴는 사업에 공모해 공동사업에 참여하는 게 주요하다. 일이 많아 올해 대표 3명과 정책위원을 꾸려 청소년과 장애 아동 관련한 사업을 위해 발로 뛰고 있다. 모든 사업의 진행 과정과 평가결과도 모두 공유하고 있다. 회의록을 작성해 공유하고, 공동사업에 대해서는 평가하고, 평가를 토대로 새로운 사업을 또 구상하기도 한다.



### 3) 특별한 약속들

다른 지역 단체들도 부러워할만한 네트워크의 유지비결은 꼭 지키기로 한 몇 가지 약속들에서 찾을 수 있었다. 첫째는 공동사업이다. 말하자면 함께 시간을 내어 참여하는 형태로 공동사업을 진행한다. 만약 프로젝트 예산을 단순히 단체별로 나누는 식이었다면 건강한 네트워크로 가꿔갈 수 없었을 거라고 한다. 지금도 이 원칙을 지켜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둘째는 복지의존증과 상담내성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다. 활동가가 직접 멘토링 활동에 참여하며 세세하고 살피고, 앞으로 이 분야에 일할 청년 활동가도 키워갈 계획도 세웠다.

셋째는 사업의 방향이다. 성아청은 ‘교육 돌봄’에 대한 의미를 나누고 필요한 공동사업을 만들어내는 일을 하고 있다. 지금 이뤄지는 공교육 돌봄은 초저학생에 주안을 두고 있어 사실상 초등학생 고학년이나 중학생은 배제되어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간제, 일시 돌봄 등 틈새 돌봄에 대한 고민으로 공동사업이 계획 중에 있다. 올해 ‘교육돌봄포럼’을 만들어, 교육청이나 지자체 관계자도 참여하게 했다. 많은 사람들에게 교육돌봄의 문제를 알리고, 도움을 청하는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 되리라 믿는다.

